언제까지 루시디 세대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작가세대 없는 영국 문학계의 고민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최근 영국에서는 샐먼 루시디의 신작 소설이 나와 화제다. 그는 그의 행동이 늘 조명받는 연예인급 대작가다. 그의 뉴욕행을 상기시키듯 새 작품《분노(Fury)》의 주요 무대는 뉴욕이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복수의 세 여신들을 상징하는 제목처럼 주인공 말릭 솔란카는 자신이 사랑했던 세 여인에 의해 파멸돼간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신문 서평란을 장식했고, 예의 환상적인 상상력이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킨다는 평도 받았다. '워터스톤' 같은 대형서점에서는 할인가를 매겨 판매촉진에 나섰다.

루시디의 책은 나오기 이전에 예고됐고, 역시 곧 출간이 예정된 이언 맥기언의 책《속죄(Atonement)》와 함께 올 가을 빅 이벤트로 다뤄진다. 루시디, 맥기언과 줄리언 반즈, 마틴 에이미스는, 이른바 영국 문학계의 4인방이다. 1970년대 후반 신선한 돌풍을 몰고온 이들의 생명력은 세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출판계는 활기를 띠고, 언론은 앞다퉈 이들을 조명한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달리할 때가 온 듯하다.《가디언》은 "영국문학계는 왜 아직도 루시디, 에이미스, 반즈, 맥기언인가?" 하는 특집으로 이런 정서를 반영하는 기사를 실었다.

영국의 문학시장을 주도해온 문학 4인방

1970년대 후반 이들의 출현은 신선했다. 답보상태였던 영국 문학계에 에이미스와 반즈는 예리한 필봉을 휘둘러 가차없는 비판을 해댔다. 영국 소설은 영락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돈된 논리와 세련된 필치로 이전 세대를 쓰레기 취급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문단에 새로운 자극을 던져줬으며, 시장에도 활력을 넣었다. 에이미스는 소설로서 세계를 새롭게 보고자 했으며, 루시디는 환상적 리얼리즘을 시도했다.

1979년 창간된 문학지《그란타(Granta)》는 영국 소설의 정점을 지휘하는 폭풍의 최전선이었다. 단조롭기만 하던 영국 소설에 격정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도전적 문학을 발굴하는 것이《그란타》의 편집방침이었다. 진공상태에서 에이미스와 반즈, 맥기언이 나타났으며, 루시디가 재빨리 그 공간을 채웠다. 1980년대엔 부커상 후보에만 올라도 출판계가 와글댔으며 모든 후보작들은 시간차 없이 페이퍼백으로 출간됐다.

영국 문학계를 주도해온 4인방의 일원인 샐먼 루시디(왼쪽)와 줄리언 반즈.

하지만 지금은 침묵상태다. 그나마 닉 혼비나 세바스티안 폭스, 토니 파슨스 같은 작가들이 중간시장을 이끌고 있을 뿐이다. 이들조차 대중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자질보다 밑도는 수준의 작품을 쓴다. 똑똑하고 괜찮은 작가들은 고급 스릴러물에 매달리고 있다. 작품을 영화화해 성공한 것이 작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새로운 퓨리턴의 도전

최근《그란타》는 "2003년에도 최고의 영국 작가로 꼽힐 만한 작가"를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80년대를 빛냈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은 사라졌다. 과연 그 10년 이후엔 어떤 이름이 남을 것인가. 비관적인 전망만이 나올 뿐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젊은 편집자들은 루시디 이후 세대엔 관심이 없다. 상품성과 시장성에서 이들과 경쟁상대가 될 만한 작가가 없다는 이유다. 문학성을 지향하는 많은 작가들은 출판사로부터 지원은커녕 외면당하기 일쑤다. 첫 소설에서 흥행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된다. 자신의 이름을 세울 시간도 없다.

하지만 루시디 등의 작가들도 이제 구세대다. 1990년대에 등장한 신진작가들은 폭발적이고 반규범적이며, 명예의 배지로 문학이라는 이름을 달기를 경멸한다. 4인방처럼 문학적 아버지를 죽일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들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문화적 수단일 뿐이다. 지난해 나온 젊은 작가들의 작품선집《새로운 퓨리턴 만세(All Hail the new Puritans)》서문에선 "시는 영화나 과학기술, 음악이나 TV보다도 영향력이 적다. 오늘날 소설은 영상문화의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들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새로운 퓨리턴' 세대 작가들은 에이미스 세대처럼 작가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작품집은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글쓰기의 형태이자, 작가들의 팽배해진 자만심에 대한 공격이며, 에고이즘에 대한 선전포고"다.

루시디와 에이미스 세대는 당대 문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착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고, 영국 독자들은 그들의 문학작품을 먹고 살아왔다. 대작가의 작품을 여전히 읽을 것이냐는 영국독자들의 선택인 셈이다. ■